

경산시, 미래차 기술기반 부품혁신 포럼 개최

강을호 기자 keh9@naver.com | 입력 | 수정 2023.06.29 15:57



2023 미래차 기술기반 부품혁신 포럼 모습. 사진제공=경산시

경산시는 (재)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지난 28일 경산인터볼고CC 연회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, 경산시의회, 경상북도, 기업체 대표 및 직원,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미래차 기술기반 부품혁신 포럼'을 개최했다.

이번 포럼은 전기수소차, 자율주행 등 자동차산업의 대변혁을 맞아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미래차 기술 전환 방안 정보교류 및 미래차 글로벌 산업 동향 및 최신기술 동향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.

경산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미래차 변환이라는 큰 흐름에 따라 미래차 부품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'자율주행차 부품기술 혁신지원사업'을 (재)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위탁해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정보지원, 자율주행차 부품 실증, 기술포럼, 세미나, 시제품 제작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미래차 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.

이날 포럼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 미래자동차과 윤인식 사무관, ETAS Korea 손정호 이사, 현대자동차 권형근 위원의 자동차 국내외산업 동향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미래자동차 산업의 기술개발, 기업지원 등 정책적, 기술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.

조현일 경산시장은 "경산시도 미래차 전환에 발맞추어 부품기술 혁신지원사업, 재직자 전문교육 등 자동차 부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청년인재가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꿈을 이루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산업의 혁신 성장을 돕겠다"고 말했다.